

예술과 비즈니스의 이상적 결합이 지닌 사회적 의미

영국 A&B(Arts & Business)의 활동사례

이숙경 독립큐레이터

culture | art
비영리 단체인 A&B는 예술과 비즈니스의 결합이 서로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업체의 재정적 지원을 발굴하고 예술 단체와 개인에게 기업 파트너를 찾아주는 기본적인 활동 외에도 지역별 활동, 기업의 경쟁력 및 인재 개발 등의 A&B 활동은 예술과 경제 분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폭 넓게 아우르고 있다.

영국은 유럽 국가답게 예술 기관과 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역사가 길고 그 체계 또한 확고히 자리 잡혀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많은 예술 단체들과 행사들이 왕실이나 중앙 정부, 지역 자치 단체들에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조직적인 후원을 받고 있고, 개인적 차원의 예술 활동들도 다양한 경로로 공공 기금에 접근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 기금을 통한 예술 지원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대규모이거나 역사가 오랜 단체가 아닌 중소기업의 예술 기관, 실험적이거나 비대중적인 형식의 예술 활동들은 이런 공적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약점을 지닌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예술 지원의 원천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영국 사회에서도 늘 주요한 이슈이며, 경제계는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한 사적 지원의 보고가 되어왔다.

예술과 비즈니스의 결합 위한 비영리 단체 A&B

1976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A&B(Arts & Business)는 예술과 비즈니스의 사이에서 이들의 결합이 서로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업체의 재정적 지원을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예술 단체와 개인들에게 기업 파트너를 찾아주는 기본적인 활동 외에도 지역별 활동,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원 확보에 대한 실무 교육, 정보 제공, 창조성 교육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및 인재 개발, 모범 사례에 대한 수상과 출판 등 30년 전통의 A&B 활동은 예술과 경제 분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폭 넓게 아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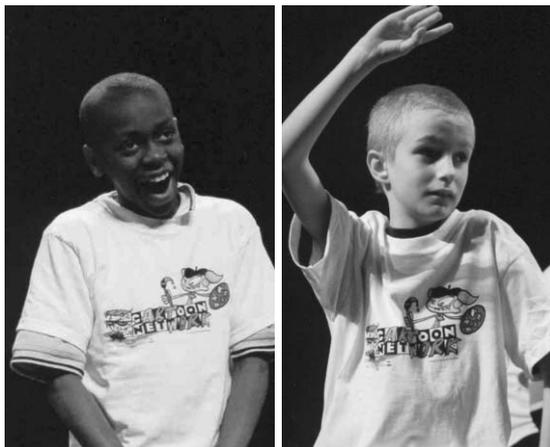
초기의 A&B 활동이 자금이 필요한 예술 기관과 행사들에 기업체의 후원을

기업의 사회 환원과 예술적 창작 기회의 제공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문제로서의 예술 진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A&B가 경험해 온 성과와 시행 착오들은 내실 있는 예술과 비즈니스 간의 결합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Arts & Business



제27회 아트&비즈니스 상 올해의 수상자 Egg 기업 대표 제임스 벨과 당시 A&B 의장 로빈 화이트, 더비 플레이하우스의 대표 케런 헵튼



찰스 황태자의 예술&어린이 재단 활동: 루이섬의 새로 단장한 브로드웨이 극장 워크숍에 참여한 브로클리 초등학교의 6학년 아동들. 이 워크숍은 찰스 황태자의 예술&어린이 재단 키톤 네트워크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 중 일부로, 활동적인 무대를 다룬 흥미롭고 아슬아슬한 탐구였다.

© Lydia Penke

연결하는 데 집중되었다면, 30년의 활동 경험이 축적된 오늘날의 프로그램들은 예술계와 세계 양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자율적 능력의 확보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대중들에게 개방된 자료실, 런던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의 활동은 특히 두드러진다.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창조성 활용 문제 또한 A&B의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기업의 사회 환원과 예술적 창작 기회의 제공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문제로서의 예술 진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A&B가 경험해 온 성과와 시행 착오들은 내실 있는 예술과 비즈니스 간의 결합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필립 스페딩과의 인터뷰

프로그램 개발과 메세나 이니셔티브 및 A&B 월드를 주관하고 있는 필립 스페딩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예술계와 경제계의 만남이 지닌 사회적 의의와 그 문화적 파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



화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예술 위원회 (Arts Council)를 통한 독립 공공 기관의 지원에 더하여 기업과 경제 분야 단체들의 지원 풍토가 활성화된 영국의 예는, 역시 공적 지원과 사적 지원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예술 진흥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유익한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다.

먼저 A&B의 설립 동기와 활동영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예술과 비즈니스의 결합에 대한 아이디어는 1970년대에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록펠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으로, 공공 기금이 부재한 미국 사회에서 예술 진흥에 대한 비즈니스의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예술 단체와 활동에 대한 공공 기금이 존재한다는 점이 미국 상황과는 크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기업의 사회 환원은 세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또한 경제 계로부터의 후원이 공공 기금의 대안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우선 필요했습니다. 흔히 정부는 사적 후원이 잘 되는 기관에 지원을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A&B는 자원봉사 체계에 주목했습니다. 기본적인 경영에 문외한인 예술인들과 단체들에 교육과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역할이었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창조성이라는 것이 제조업 이후의 경제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기가가 판매 분야의 회사원들에게 고객 관리의 실제 상황들을 재구성한 연기로 교육한다거나 미술작품을 기업체 건물에 도입하는 경우가 이런 예입니다. 이런 분야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기업이 좋은 선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많은 장점을 배우고자 합니다. 다른 기업과 국가들에서 적용, 개발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영국 현지에 맞는 방법들로 재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스페딩 씨가 운영하는 '메세나 이니셔티브(Maecenas Initiative)'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메세나 이니셔티브'는 역사적으로 풍부한 전통을 지니고 있는 문화적 박애주의를 되살려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박물관, 도서관 등이 부유한 계층의 개인들에 의해 설립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인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런 개인의 애정을 부각시킴으로써 사적 지원이 반드시 예술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박애주의자들의 관심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에 특히 관심이 많은 영국 사회에서는 이런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예술 지원이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집중적인 지원 대신 지역 사회의 예술 진흥에 대한 개인의 사회환원을 장려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의 예술 진흥과 지원에서 각 지방 행정 조직과의 협력문제는 어떻습니까?

▶ 지방 행정 조직과의 협력은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 정치인들은 예술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술 분야의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예산 부족 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분야가 예술이지요. 예술가들과 단체들이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예술을 삶의 가장 중요한 한 측면으로 부각시킬 때, 경제계와 정치계의 관심 또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의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평가하는 데 있어 사회 계층 간에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영국의 경우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만…….

▶ 사회 계층에 따라 문화와 예술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오래된 생각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계를 굳이 만드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예술을 향유하기 시작하는 관객들에게 더욱 접근하기 쉬운 통로를 제공하는 것인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개인의 애정을 부각시킴으로써 사적 지원이 반드시 예술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박애주의자들의 관심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중앙 집중적인 지원 대신 지역 사회의 예술 진흥에 대한 개인의 사회환원을 장려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Private Support



자료센터의 연구 평가 정보팀. 왼쪽부터 헤더 맥도널드, 앤더스 페터스, 자비어 스탠지올라, 리네트 센버리 © Lydia Penke

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기업의 예술 후원 단계를 넘어 개인적 차원의 지원을 장려하는 것은 상당히 새롭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 실제로 영국의 사적 예술지원 기금 중 개인적 지원은 최근 들어 가장 증가하는 분야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한다는 생각을 넘어 보다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고 사회, 경제, 예술분야 간의 이상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죠. 예술 지원에 대한 지난 몇 십 년간의 접근방식 변화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초기에는 비즈니스와의 어떤 연결도 예술적 고결함을 상실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던 데 반해, 지금은 모든 예술 단체들이 사적 기금의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상위 매니저들의 능력 중 반 이상이 이 분야에 집중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도 그 단계를 넘어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방식의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봅니다. '메디치' 가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여러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통해 예술 지원을 장려하는 정책을 고민하는데, 이것이 큰 영향을 지닌다고 보십니까?

니다. 여행 관련 업체인 트래블렉스(Travellex)가 왕립 오페라 하우스(Royal Opera House)에 제공하는 10파운드짜리 표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서민층 관객이 많지 않은 오페라 분야에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반드시 부유한 관객만이 특정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관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청소년층에 집중하기보다는 학교를 떠난 이후 전혀 예술을 대하지 않는 직장인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예술 위원회(Arts council)도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예술이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주목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계층이라는 것으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구분을 쉽게 환

▶ 세금 혜택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단지 이 이유만으로 예술을 지원할 개인이나 기업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진정한 지원의 이유가 있을 때 부가적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만 집중하여 기대할 경우 실망할 것입니다.

A&B는 기존의 후원 체계뿐만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방법의 결합을 예술계와 경제계 양측에 제시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 예술 지원에 있어 변화의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경제가 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이 경제계의 능력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항상 필요성이 생기고 새로운 방식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육과 연구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 A&B가 주목하는 교육 관련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중소 규모 예술 단체들에 기금 마련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것이 예입니다. 일부 세미나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또 하나는 비즈니스 전반의 변화 상황을 인지시키는 것으로, 5년 전 시작된 '뉴 파트너즈(New Partners)' 프로그램이 그 예입니다. 특정 기관이나 사업에 후원 업체를 찾아주는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 시장의 변화를 예견하는 것도 미래를 보는 정책을 제공하고 자 하는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술계와 기업체의 장기 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전개합니까?

▶ 장기적인 협력에 있어서는 양측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처음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런 협력이 지속되기 때문이죠. 저명한 문학상인 휘트브레드(Whitbread) 문학상이 이런 협력의 예인데, 이 기업이

이제는 '휘트브레드' 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없으면서 문학상의 후원 역할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문학상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상황이므로 새롭게 후원업체가 나타나더라도 '000 휘트브레드 문학상' 이라는 식으로 명칭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분야가 예술 지원 방식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물론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대표적이죠. 이 분야의 산업은 많은 콘텐츠가 예술 행위와 직접 연관된 것이고, 아직 개발의 여지가 풍부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회사들이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대중음악 페스티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 예입니다. 풍부한 상상력으로 개발해 볼 만합니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한 국가를 넘어 다국적 개념의 산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측면은 예술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예술 지원 관련 마케팅과 지역 활동 등은 아직도 대부분 국가 단위로 진행됩니다. 국경을 넘는 후원 개념은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국가들의 예술 단체들이 서로를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개발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 덧붙여주실 말씀이 있다면…….

▶ 기본적인 단계의 예술 지원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는 동안 경제계의 구조와 성격 등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른 나라와 기구들의 예들을 응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기업들이 직접 미술관이나 예술 단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마도 이런 예들은 우리가 배우고 연구해야 할 것들이겠죠. 또한 문화 산업과 창조적 산업에 대한 구별된 이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